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윤명조(尹明照) 박사 -1-

박 창 근

〈분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1.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인’ 1세대(世代.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 사이에, 공해문제 연구와 환경보전 대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분)는 열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까, 말까하다.

그 열 손가락 중의 한분에 ‘윤명조’ 박사님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쩌면 그 열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까, 말까한 분들만 알고 있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하기야, 지금은 환경문제 전문가가 ‘환경기술인’을 포함해, 수십 만 명이 넘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환경을 한다는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되고, 그렇게 구차스럽게 따지지 않는다면, 4천8백만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산과 들에서 한두 번 이상은 쓰레기를 주워본 경험이 있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며,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환경인’ 이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인’ 1세대라는 것이 번거로운 계산이고, 또한 대단한 일일 터이다.

90년대 중반, 이 나라의 환경보전의 일에 자칭,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내세우던 K모씨는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의 시발(始發)을 ‘최열’ 씨가 ‘반공해 운동’을 시



본 월간지 1986년 8월 소식 표지에 모셨던, 당시 현대환경관리소 소장으로 계셨던 윤명조 박사님!

작한 1983년부터라고, 다분히 ‘최열’ 씨에 대한 아부적이며, ‘장님 코끼리 팽’ 같은 글을 발표해,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실소(失笑)를 자아내게 했는데...

그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권숙표 박사도, 노용희 박사도, 노재식 박사도, 차철환 박사도, 김정현 박사도, 이승무 박사도, 이용근 박사도, 고홍순우 박사도, 구연창 박사도... 심지어는 윤명조 박사도 필자도 1983년도 이전에는 환경문제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한 것이 되고, 어쩌면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를 어쩌나, 이미 환경인 1세대가 1960년 초반부터 이 나라의 공해문제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연구, 활동했고, 1968년에는 대학 최초의(아니, 대학을 떠나서도 최초인) 환경문제 연구소인 ‘연세대학교 공해연구소’가 윤명조 박사의 제창으로 창설되고, 소장에 권숙표 박사, 총무부장에 김명호 박사, 연구부장에 윤명조 박사, 홍보 부장에 이근태 박사 등이 우리나라의 대기, 수질, 토양의 질을 따지기 시작한 즉, 본격적으로 한국의 ‘공해문제’ 연구와 ‘환경보전’ 대책이 시발(始發) 되고, 필자가 신문과 잡지에 공해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해서 글을 썼으니...

이는, 어제(7월 11일), 윤명조 박사님과 ‘환경기술인연합회’ 이상호 회장 그리고 필자가 동석한 ‘일산’의 권숙

표 박사님 맥 회동(會同)에서도, 권 박사님의 증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환경사에서, 개인적인 관심이나 의지가 아닌, 조직(제대로 실험실을 갖춘 연구소)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처음,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한 것이 1968년이어서, 앞의 K 모씨의 주장은 무려 15년의 과거를 몰랐던 이야기가 된다.

2

윤명조 박사님과 필자의 만남도 '연세대학교 공해연구소' 시절부터 시작된다.

아니, 필자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다닐 때, 윤박사님이 '부속고등학교'에 다니셨으니, 당시 승인동에 있던 '사대부중 ? 고' 캠퍼스인 '청량대'에서 옷깃이 스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해방(1945년 8월) 다음 해에, 월남한 윤박사님이 '회현동'에서 사셨고, 해방되던 해에 서울에 온 필자가 '예장동'에 살았으니(지금의 '리라국민학교' 자리가 집이었다), '회현동'과 '예장동'은 바로 '남산' 아래 동네의 한 울타리라, '과학관' (필자는 당시, 그곳에서 고 정영호 박사님과 미승우씨를 만났다.)이나, '약수터'가 아니면, '동화백화점' (현, 신세계백화점) 대리석 계단에서 빚겨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윤박사님께서 함경북도 '함흥시'에서 태어나시고, '성진(현, 김책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으니, 중국 '북경'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고향인 함북 '라남'을 오가던 필자여서, 아주 가까운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숨 쉰 것이 되는데, 이런 인연으로 따진다면, 윤박사님과 의 인연(因緣)은 60년이 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생각의 인연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알고('연세대 공해연구소' 시절) 지내온 세월도 40년이 되니, 보통의 인연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그 40년 동안, 가까이에서 뵈 윤명조 박사님은 한마디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다. 즉,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이야기다. 필자뿐만 아니라, 윤박사님을 아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우선, 사람을 대함에 그가 누구이건, 반가움과 진지함이 넘친다.

-전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주려고 애쓴다.

-무슨 일에 있어서도 화를 내는 법이 없다.

-선, 후배를 철저히 챙기고, 동료 간에 우애가 깊다...

이뿐만이 아니지만, 너무 늘어놓으면, 욕이 될 수도 있어, 최근에 있었던 일, 한가지만을 예를 들어도, 윤명조 박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얼마 전(지난 7월초),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에서 고문 간담회가 열려, 그곳에서 오랜만에 윤박사님을 만났다.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묻는 말미에, 챙기는 한 마디, "박선생. 요즘, 권박사님 자주 찾아뵙소? 나는 찾아뵙는다, 찾아뵙는다 하면서... 못 찾아뵈어서..."

그래서 '쇠뿔도 단김에 뽑는다'고 다음, 다음 날 윤명조 박사님과 이상호 회장 그리고 필자는 '일산'의 권숙표 박사님 댁을 찾아가게 되었다.

박사님 댁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가는 길에 '서오농'의 한 식당에서 우리끼리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화제는 자연스럽게 찾아 뵈, 권박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나온 이야기는...

-“來, 후년이면 권박사님이 미수(米壽 88세)가 되시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에서 시작하여, '米壽 기념사업'과 '米壽 기념문집(3권 1집)'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이는 우리 세 사람만의 생각과 이야기로, 권박사님의 미수(米壽)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계속 연구해보기로 했다. 필자는 윤명조 박사님의 이런 마음 씀씀이에, 코허리가 시큰했다.

'연세대학교 공해연구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후에 어찌어찌하여 연구소를 그만 두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 윤명조 박사님의 의리(義理)가 더 없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그렇다! 공해(公害)하면, 권숙표 박사님이었듯, 의리(義理)하면 윤명조 박사님이 아니겠는가?

<계속>